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관여하는 4가지 심리적 요인, 즉 강한 정서 경험과 반응, 정서조절기술의 결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 정서적 회피를 살펴보고 각 요인간의 관계를 통해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에 대해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대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 수용행동 질문지, 사고억제 질문지, 정서강도 척도, 자기능력변화 척도를 실시하고, 경계선-회피성 집단, 경계선 집단, 회피성 집단, 통제 집단을 선발하여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회피성 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더 강한 정서경험을 하고 정서조절기술이 더 결여되어 있고 자기파괴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정서적 회피 경향은 경계선-회피성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계선 집단과 회피성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결과인 자기 파괴적 행동과 정서조절취약성인 강한 정서 경험 및 정서조절기술의 결여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강한 정서경험 및 정서조절기술의 결여와 자기 파괴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회피의 완전매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취약성이 정서적 회피를 통해서만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계선 성격장애, 정서적 회피, 부적응적 정서조절, 자기 파괴적 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Linehan(1993)은 정서적 취약성을 타고난 사람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정서경험과 정서반응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무시되거나 부정되는 경험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보다 억제하고 과잉 통제하려는 성향을 획득하게 되고 나중에는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특징이 정서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특징으로 정서조절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일부 영역에 걸쳐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Yen, Zlotnick, & Costello, 2002).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적 성격 성향자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강한 정서경험과 반응, 정서조절기술의 결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 정서적 회피를 고려하여 살펴보고 각 요인간의 관련성을 통해 구체적인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강한 정서경험과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Arntz, Klokman, & Sieswerda, 2005). Herpertz 등(1997)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통제집단과 C군 성격장애자보다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학적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경우 정서 반응과 관련성이 높은 편도체 각성 수준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았다(Herpertz et al., 2001). 즉,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정서적으로 더 쉽게 각성되고 정서의 강도가 더 빨리 통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증폭되었다.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해서 Strosahl, Chiles와 Linehan(1992)은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는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Chapman, Graetz와 Brown(2006)는 정서조절기술의 결여는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정서를 제대로 경험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저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조절 실패가 가장 흔히 초래하는 행동적인 결과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자살하려는 의도가 없이 자기 몸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48-79%에서 나타난다(Brodsky, Cloutre, & Dulit, 1995). Haines, Williams, Brain과 Wilson(1995)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주는 기능을 하며,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Russ, Shearin, Clarkin, Harrison, & Hull, 1993),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자해 행동을 하는 중이나 그 이후에 통증이 경감되거나 사라졌으며, 우울, 불안, 무망감이 자살 시도 이후에 감소되었다(Strosahl et al., 1992). McCown, Galina, Johnson, DeSimone과 Posa(1993)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자가 손가락에 가해지는 냉압의 고통을 참는 정도에서 초기에는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은 후에는 고통을 더 오래 견뎠다. 하지만 의도적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통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이는 원하지 않는 정서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가져옴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정서적 회피는 부정적인 신체 감각, 감정, 사고, 기억 등을 회피하거나 바꾸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황장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불안장애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서조절방략 중 하나이다(Haye et al., 1996; Hayes, Strosahl, & Wilson, 1999). 최근 연구(Cheavens et al, 2005; Rosenthal, Cheavens, Leujuez, & Lynch, 2005)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자는 불쾌한 사고와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빈번히 보이며 그 결과 오히려 더 강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정서적 회피의 한 하위 구성요소인 사고 억제에 관한 한 연구(Cheavens et al, 2005)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경험의 강도 및 정서적 반응성과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들 간의 관계를 사고억제가 중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서적 회피는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초래하고 악순환을 유지시키는 기저의 핵심요인이라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정서경험과 반응, 정서조절기술의 결여, 자기 파괴적인 행동, 정서적 회피 경향성 등은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같은 수준의 자극에도 매우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요인이 성격장애 중에서도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 특정하게 관련된 요인이며,

만약 강한 정서경험과 반응 및 정서조절기술의 결여가 자기 파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이를 정서를 억제하고 과잉통제하려는 경향성인 정서적 회피가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의 첫 단계로 우선 대학생 경계선 성향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비교 연구를 하였으며, 선행 연구(예, Herpetz et al, 1997)에서 C군 성격장애를 비교 군으로 한 점을 고려해 비교집단으로 C군에 속하는 성격장애인 회피성 성격장애 성향자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질문지에 응답한 대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 집단이 회피성 성격장애 성향자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더 강한 정서경험과 반응을 보이고 정서조절 기술은 더 부족하며, 정서적 회피 수준과 자기파괴적 행동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회피는 강한 정서경험 및 정서조절기술의 결여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학부생 6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남자가 359명, 여자가 235명, 성별을 기록하지 않은 6명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21.68세였다.

도 구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이 척도는 성인의 성격을 평가하는 객관적 자기 보고형 질문지인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의 11개 임상척도 중 하나이다.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번안하여 개발한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분석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우선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총점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고 매개검증을 위해서는 전체 피험자의 경계선 성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기 손상 하위 척도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

이 척도는 황순택(1995)이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 준거에 따라 개발한 성격장애 척도 중 하나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성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수용 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 이하 AAQ)

이 질문지는 Hayes 등(2004)에 의해서 감정 경험에 접촉하지 않으려 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은과 조용래(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Hayes 등(2004)에 따르면 이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은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사고억제 척도

이 척도는 원하지 않는 사고를 억제하고 회피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Wegner와 Zanakos가 개발한 질문지(White Bear Thought Suppression; Wegner & Zanakos, 1994)를 이용승(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3이었다.

정서강도 척도(Affect Intensity Measure: 이하 AIM)

이 척도는 만성적인 정서 경험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arsen(1984)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부정적 정서강도, 부정적 정서반응, 긍정적 정서강도, 긍정적 정서반응 4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정서강도는 느끼는 정서의 강도를 의미하며, 정서 반응성은 정서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은 .88이었다.

자기능력변화 척도(Inventory of Altered Self Capacity; 이하 IASC)

이 척도는 Briere(2000)가 아동기 학대 생존자와 대인간 폭력 외상의 생존자가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체성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하여 개발한 63문항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부적응적 정서조절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정서조절기술 결여 요인과 긴장감소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서조절기술 결여 요인은 정서조절에 대한 기술의 결함을 평가하는 척도로 문항의 예를 보면 “진정하고 싶지만 잘 안된 경우가 있다.”,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 등이 해당된다.

긴장감소 행동 요인은 외현화 행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내적 상태와 정서에 반응하는 행동을 나타내며 문항 예시를 보면 “단지 화풀이를 하기 위해 싸움을 건 적이 있다.” 등이 있다. 일차로 연구자 외 1인이 공동번안하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임상심리전문가가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위요인은 국내 타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개발자가 설정하였던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한국판 IASC의 내적 일관성은 .9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PAI-BOR 점수와 PDS-A 점수를 기준으로 경계선-회피성 집단, 경계선 집단, 회피성 집단, 통제집단을 선별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한 변량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회피가 부정적 정서강도 및 정서조절기술 결여와 자기 파괴적 행동 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Version 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MOS 분석에 앞서 집단 간 비교와는 달리 전체 피험자 610명의 경계선 성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 측정치를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하위 요인 중 자기 손상 요인 측정치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부합도 지수로 일반 부합치(GF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상대적 부합도 지수로는 비표준 부합치(NNFI or TLI)와 표준 부합치(NFI)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적합도 지수들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고 RMSEA의 경우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

통 적합도, .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집단구분

집단비교를 위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610명에게서 얻어진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 점수와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PADS-A) 점수를 기준으로 경계선-회피성 집단, 경계선 집단, 회피성 집단, 통제집단을 구분하였다(표 1). 집단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경계선-회피성 집단은 PAI-BOR과 PDS-A 모두 상위 20%이상인 경우, 경계선 집단은 PAI-BOR에서 상위 20%이상이면서 PDS-A에서는 평균미만인 경우, 회피성 집단은 PDS-A에서 상위 20%이상이면서 PAI-BOR에서는 평균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은 PAI-BOR과 PDS-A 모두 하위 20%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집단 구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PAI-BOR 점수와 PDS-A 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있었다, 각각 $F(3, 158) = 309.09, p < .001$; $F(3, 158) = 333.51, p < .001$. 특히 경계선-회피성 집단은 PAI-BOR 점수에서는 경계선 집단과 차이가 없었고 PDS-A 점수에서는 회피성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계선과 회피성 성격장애 성향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임을 의미하였으며, 집단 구분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였다.

집단 간 평균 비교

집단 별 점수 및 평균비교는 그림 1과 표 2

표 1. 집단 별 PAI-BOR 원점수와 PDS-A 원점수

	경계선-회피성 (n=59)	경계선 (n=35)	회피성 (n=25)	통제 (n=43)	F	Scheffé
PAI-BOR	42.47(6.68)	40.25(5.12)	22.08(4.46)	13.56(3.26)	309.09***	1,2>3>4
PDS-A	40.85(5.17)	22.91(3.97)	38.32(3.52)	18.33(2.08)	333.51***	1,3>2>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비교의 편의를 위해 경계선-회피성 집단을 1, 경계선 집단을 2, 회피성 집단을 3, 통제집단을 4로 표시함.

*** $p < .001$.

에 소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부정적 정서강도와 긍정적 정서강도, 긍정적 정서반응 모두에서 회피성 집단 및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각각 $F(3, 158) = 42.59, p < .001$; $F(3, 158) = 7.43, p < .001$; $F(3, 158) = 10.26, p < .001$. 부정적 정서반응에서도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F(3, 158) = 18.73, p < .001$, 경계선-회피성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조절기술 결여에서도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으며, $F(3, 158) = 40.91, p < .001$,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아 정서조절기술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별 자기 파괴적 행동을 살펴보면,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회피성

집단 및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정서적 회피를 측정하는 수용 행동 능력과 사고억제에서도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각각 $F(3, 158) = 57.01, p < .001$; $F(3, 158) = 42.14, p < .001$. 수용행동 능력 점수를 분석해보면, 경계선-회피성 집단이 정서경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 다음이 경계선 집단과 회피성 집단이었다. 사고억제의 정도는 경계선-회피성 집단이 가장 높았고 경계선 집단과 회피성 집단은 모두 통제 집단 보다 높았지만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경계선 성향 집단은 정서 경험의 강도가 높고 정서조절기술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파괴적 행동이 높다는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 한편 높은 정서반응과 높은 정서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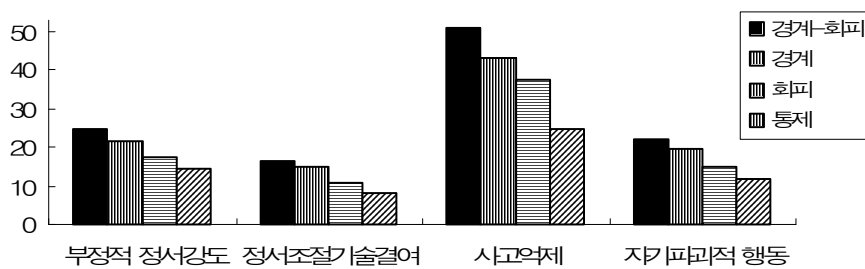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부정적 정서 강도, 정서조절기술 결여, 사고억제, 자기파괴적 행동 점수

표 2. 집단 별 정서강도/반응과 정서조절기술 결여, 정서적 회피와 자기 파괴적 행동

	경계선-회피성 (n=59)	경계선 (n=35)	회피성 (n=25)	통제 (n=43)	F	Scheffé
총점	159.43 (24.28)	157.55 (23.39)	132.12 (15.39)	130.81 (15.64)	22.83***	1,2>3,4
부정적 정서강도	24.65 (5.92)	21.64 (4.67)	17.28 (4.48)	14.23 (3.22)	42.59***	1>2>3,4
정서강도	24.36 (4.74)	20.66 (4.37)	21.32 (4.67)	18.00 (3.18)	18.73***	1>3>4, 1>2
부정적 정서반응	27.56 (8.43)	27.89 (6.29)	21.92 (4.97)	23.11 (5.17)	7.43***	1,2>3,4
긍정적 정서반응	35.47 (6.41)	35.78 (6.85)	30.84 (4.76)	29.93 (5.55)	10.26***	1,2>3,4
정서조절기술 결여	16.44 (4.67)	14.94 (4.12)	10.72 (3.63)	8.21 (2.87)	40.91***	1,2>3,4
수용행동 능력	43.27 (6.61)	34.45 (6.51)	35.44 (6.04)	27.61 (4.65)	57.01***	1>2,3>4
정서적 회피	51.00 (12.86)	43.40 (13.92)	37.48 (10.50)	24.84 (8.63)	42.14***	1>2,3>4
자기 파괴적 행동 (PAI-BOR)	8.86 (2.99)	8.37 (2.38)	3.16 (1.88)	2.42 (1.47)	84.89***	1,2>3,4
자기 파괴적 행동 (IASC)	22.02 (8.07)	19.34 (5.16)	14.96 (4.49)	11.67 (2.54)	28.49***	1,2>3,4

주. 수용 행동 능력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경험을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표준편차. 비교의 편의를 위해 경계선-회피성 집단을 1, 경계선 집단을 2, 회피성 집단을 3, 통제집단을 4로 표시함.

*** $p < .001$.

피는 경계선 성향 집단과 회피성 성향 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으며, 정서적 회피의 경우 경계선-회피성 성향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분석 결과

변인 간 상관분석

정서조절 취약성과 정서적 회피, 자기 파괴적 행동의 측정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표 3), 정서조절 취약성인 부정적 정서강도와 정서조절기술 결여 간에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 = .51, p <$

표 3.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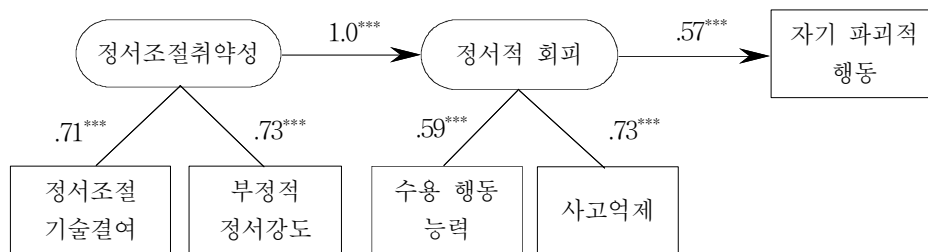
	1	2	3	4	5	6
1. 부정적 정서강도		.51***	.42***	.50***	.45***	.46***
2. 정서조절기술 결여			.42***	.55***	.63***	.41***
3. 수용행동 능력				.46***	.30***	.31***
4. 사고억제					.53***	.38***
5. 자기 파괴적 행동(IASC)						.48***
6. 자기 파괴적 행동(PAI-BOR)						

*** $p < .001$.

표 4. 완전 매개모델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

이론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정서조절취약성 → 정서적 회피	1.33	1.0	12.76***
정서적 회피 → 자기 파괴적 행동	.41	.57	10.85***

*** $p < .001$.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01$)

그림 2. 완전 매개모형

.001, 수용행동 능력 척도와 사고억제 척도 간에도 유의미하였다, $r = .46, p < .001$. 또한 정서조절 취약성과 정서적 회피 간의 상관도 높은 편이었으며, 정서적 회피와 자기 파괴, 정서조절 취약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 간의 상관도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나, $r = .30 \sim .63, all p < .001$, 본 자료가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정서조절 취약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 간 관계에서 정서적 회피의 매개 효과

정서적 회피가 정서조절 취약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 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

표 5. 부분 매개모델, 완전 매개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 결과

	χ^2	df	p	GFI	RMSEA	NFI	NNFI
부분 매개모델	5.34	4	.25	1.0	.02	.99	1.0
완전 매개모델	12.14	5	.03	.99	.05	.99	.98

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정서조절 취약성이 정서적 회피를 통해서만 자기 파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4, N = 610) = 12.14, p = .03, GFI = .99, NFI = .99, NNFI(TLI) = .98, RMSEA = .05$ 로서 모든 적합도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 취약성에서 정서적 회피로 가는 경로와 정서적 회피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조절 취약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회피 수준이 높고, 자기 파괴적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상대적 적합도 지수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 모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4, N = 610) = 5.34, p = .25, GFI = 1.0, NFI = .99, NNFI(TLI) = 1.0, RMSEA = .02$. 그러나 정서조절 취약성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가는 경로와 정서적 회피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서조절 취약성은 자기 파괴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서적 회피도 자기 파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완전 매개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적 회피가 정서조절 취약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주요 증상이자 핵심 문제라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지지되어 왔지만(Linehan, 1993) 최근에는 비로소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자기 파괴적 행동이 회피적 속성을 가진다는 이론이 제안되면서(Hayes et al., 1996)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관련된다고 알려진 강한 정서경험과 반응, 정서조절기술 결여, 정서적 회피, 자기 파괴적 행동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구조 방정식을 통해 정서조절 취약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 부족하며, 정서적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서조절 취약성 중 정서강도에 관한 집단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강도에서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회피성 집단

및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가 같은 자극에도 회피성 집단 및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강도의 정서를 느끼는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높은 정서적 각성 수준이 보고 되었다는 선행연구들(Henry et al., 2001; Koenigsberg et al., 2002)과도 일치한다. 특히 긍정적 정서강도에서도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회피성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높은 강도의 정서를 경험한다는 Linehan(1993)의 생물사회적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서강도와는 달리 부정적 정서 반응 요인에서는 경계선-회피성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고, 경계선 집단은 회피성 집단 및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사해주는 데, Bryant, Yarnold와 Grimm(1996)은 높은 정서강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부정적 자극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피하고 억제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회피 및 억제 대처노력을 통해서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정서조절 취약성인 정서조절기술 결여에서도 두 경계선 집단이 회피성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정서적 각성을 완화하고 고통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는 선행연구(Strosahl et al., 1992)를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계선-회피성 집단과 경계선 집단이

회피성 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경계선 성향이 자기 파괴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서적 회피 수준에서는 경계선-회피성 집단이 가장 높았고 경계선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성격장애의 공통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Young, Klosko와 Weishaar(2003)은 성격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이 흔히 공통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인지적, 정서적 회피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격장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계선 집단과 회피성 집단 간에 전반적인 정서적 회피 수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성격장애의 유형에 따라 드러나는 정서적 회피의 양상과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추후 경계선 특정적인 정서적 회피의 행동양상 및 관련 자극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서 정서조절 취약성 요인인 강한 정서경험과 정서조절기술 결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기 파괴적 행동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정서적 회피가 정서조절 취약성과 자기 파괴적 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강한 정서경험과 정서조절기술 결여를 보이더라도 수용 및 행동능력이 높거나 사고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즉 정서적 회피 수준이 낮은 경우 자기 파괴적 행동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같은 수준의 자극에도 훨씬 높은 강도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적 경험을 무조건 회피하고 과잉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

적 행동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자각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들이 정서조절 능력들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제안되어 왔으며 이는 최근 행동 치료에서 각광받는 수용 중심적 접근(acceptance-based approaches)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다이어렉티컬 행동 치료(DBT)는 강한 정서 인내력과 경험적인 수용을 포함한 모델로 명상을 응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의 정서적 자각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으며,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대인관계 기술과 정서조절, 의도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Linehan, Tutek, Heard, & Armstrong, 1994).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에게는 정서적 회피 수준을 낮추고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원하지 않는 정서적 각성을 인내하고 조절하기 위한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성향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자기보고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정서적 회피가 실제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드러나는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추후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장애 경향성과 정서증후군을 측정하는 척도들 사이에 수렴변별타당도가 있는지가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질문지에 대한 동 시점 반응의 유사성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야기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을 검증함으로써, 추후 부적응적 정서조절 과정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이용승 (2000). 강박사고억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 조용래 (2004). 생활스트레스, 걱정에 대한 신념 및 경험적 회피가 일반화된 불안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1-372.
-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홍상황,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259-27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ntz, A., Klokman, J., & Sieswerda, S. (2005). An experimental test of the schema mode

- model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6, 226-369.
- Briere, J. (2000). Inventory of Altered Self Capacities(IASC).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Brodsky, B. S., Clotre, M., & Dulit, R. A. (1995). Relationship of dissociation to self-mutilation and childhood abus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 1788-1792.
- Bryant, F. B., Yarnold, P. R., & Grimm, L. G. (1996). Toward a measurement model of the affect intensity measure: A three-factor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223-247.
- Chapman, A. L. Grazt, K. L. & Brown, M. Z. (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 Cheavens, J. S., Rosenthal, M. Z., Daughters, S. B., Nowak, J., Kosson, D., Lynch, T. R., & Lejuez, C. W. (2005). An analogue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al criticism, negative aff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role of thought sup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2), 257-268.
- Haines, J., Williams, C. L., Brain, K. L., & Wilson, G. V. (1995). The psychophysiology of self-muti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71-489.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Guilford: New York.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Polusny, M. A., Dykstra, T. A., Batten, S. V., Bergan, J., Stewart, S. H., Zvolensky, M. J., Eifert, G. H., Bond, F. W., Forsyth, J. P., Karekla, M., & McCurry, S. M.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 553-57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64(6), p1152-1168.
- Henry, C., Mitropoulou V., New, A. S., Koenigsberg, H. W., Silverman, J., & Siever, L. J. (2001).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and bipolar II disorde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35, 307-312.
- Herpertz, S. C., Dietrich T. M., Wenning, B., Krings, T., Erberich, S. G., Willmes K, Thron, A., & Sass, H. (2001). Evidence of abnormal amygdala function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functional MRI study. *Biological Psychiatry*, 50, 292-298.
- Herpertz, S. C., Gretzer, A, Steinmeyer, E. M., Muehlbauer, V., Schuerkens, A., & Sass, H. (1997).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personality disorder: results of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44, 31-37.
- Koenigsberg, H. W., Harvey, P. D., Mitropoulou,

- V., Schmeidler, J., New, A. S., Goodman, M., Silverman, J. M., Serby, M., Schopick, F., & Siever, L. J. (2002). Characterizing affective instabil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9(5), 784-788.
- Larsen, R. (1984). Theory and Measurement of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s characteristic.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 2297B.
- Linehan, M. M.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Y: The Guilford Press.
- Linehan, M. M., Tutek, D. A., Heard, H. L., & Armstrong, H. E. (1994). Interpersonal outcome of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for chronically suicidal borderlin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General Psychiatry*, 48, 1060-1064.
- McCown, W., Galina, H., Johnson, J., DeSimone, P., & Posa, J. (1993).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laboratory-induced cold pressor pai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ural Assessment*, 15, 87-95.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Florida, U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Rosenthal, M. Z., Cheavens, J. S., Lejuez, C. W. & Lynch, T. R. (2005). Thought sup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1173-1185.
- Russ, M. J., Shearin, E. N., Clarkin, J. F., Harrison, K., & Hull, J. W. (1993). Subtypes of self-injurious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1869-1871.
- Strosahl, K., Chiles, J. A., & Linehan, M. (1992). Prediction of suicide intent in hospitalized parasuicides: Reasons for living, hopelessness, and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33(6), 366-373.
- Wegner, D. M., & Zanakos, S. (1994). Chronic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62(4), 616-640.
- Yen, S., Zlotnick, C., & Costello, E. (2002). Affect regulation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 693-696.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원고접수일 : 2007. 3. 6.
 게재결정일 : 2007. 7. 3.

Emotion Dysregulation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Jinmi Park Sugyun Seo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motion dysregul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BPD tendency. Fifty-nine borderline-avoidant, thirty-five borderline, twenty-five avoidant, forty-three control groups were selected out of 610 college students and were assessed on intensity of negative affect, emotion regulation skill deficit, self-mutilative behavior and emotional avoidance.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BPD features had higher affective intensity, highe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skill deficit and greater tendency toward self-mutilative behaviors than other groups. And borderline-avoidant group had greater tendency toward emotional avoidance than other groups. In addition,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e equational modeling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ulnerability factors (intensity of negative emotion, emotion regulation skill deficit) and the self-muti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ulnerability factors affects self-mutilation only through emotional avoid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studies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BPD, emotional avoidance, emotion dysregulation, self-mutilation